

**몽골의 외국인투자,  
자원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**

- 몽골은 1990~2003년간 73개 국, 3,042개 외국 기업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으며, 최근 3년간 약 30%의 증가율을 보임
  - 국경 지역에 자유경제지역(FEZs)\*을 설치하여 다른 동북아 국가와 서방 국가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
    - \* 현재 Altanbulag(러시아와 인접), Zamyn-Ude(중국과 인접), Tsagaan Nuur(러시아와 인접)의 3개 FEZ가 설치되어 있음

□ 자원 개발 분야의 FDI가 전체의 46%를 차지

- 몽골은 동, 금, 우라늄 및 형석 등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부국 중 하나이나, 국토의 75% 이상은 자원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 개발지역

**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**  
(2003년말 누적 수치)

단위: 백만 달러

	누적 투자금액	건당 평균 투자금액	비고*
자원 개발 (광물, 석유)	462	2.0	캐나다(132), 중국(130), 미국(115)
무역 및 요식업	128	0.2	중국, 한국, 싱가포르, 영국
경공업	83	0.5	일본(28), 중국(19), 홍콩(8)
피혁가공업	50	0.3	중국, 미국, 이탈리아
건설업	49	-	
금융업	31	-	Trade and Development Bank 및 Agricultural Bank 지분 해외 매각
통신업	21	-	일본(8), 한국(5.3)

\* 괄호 안은 누적 투자금액(단위: 백만 달러).

□ 2003년의 10대 FDI 중 상위 3건을 비롯한 5건이 자원관련 분야

### 2003년 10대 투자자

순위	투자자	현지법인	투자 내용
1	Cameco(캐나다)	Boroo Gold	북부의 Boroo 광산의 금광 개발
2	Soco(미국)	Soco Tamsag	동부의 Tamsag 분지의 석유 개발
3	Ivanhoe Mines(캐나다)	Ivanhoe Mines	남부 Oyu Tolgoi 광산의 금, 구리 개발
4	ING Bank (룩셈부르크)	Trade and Development Bank	몽골 최대 상업은행인 TDB의 지분 56% 인수
5	Suruga Corp.(일본)	Suruga Mongol	울란바토르 역 주변의 도시개발
6	중국계 기업	Baolinpetrochem	석유 개발
7	영국계 기업	Petmongolia	경공업
8	RCM Corp.(미국)	Erdmin	서북부의 Erdenet 광산의 구리 개발
9	KDDI, Sumitomo (일본)	Mobicom	이동통신 사업
10	Chenjiahua Construction(중국)	Bodga Holdings	건설 및 관광

□ 한국은 중국, 캐나다, 미국에 이어 제4위의 투자국

- 주요 투자국은 동아시아와 북미로 전체의 80%를 차지
- 중국은 자원개발(1억 5,380만 달러), 무역 및 요식업(9,250만 달러) 중심으로 총 3억 7,901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, 캐나다는 2003년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제2위의 투자국이 됨
-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(16%), 경공업(8%), 운송(7%), 통신(6%)임

국가별 투자 현황  
(2003년말 계)

단위: 백만 달러

	중국	캐나다	미국	한국	일본	러시아	불가리아	홍콩
금액	379	133	115	81	60	34	27	22

- 몽골은 현재 37개 국과 무역협정을, 31개 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음(우리나라와는 모두 체결)
- 우리나라 기업의 몽골의 자원 개발 분야 진출은 금, 인광석 등 10개 사업으로 현재 시험생산 중인 사금과 인광석은 금년부터 본격 생산 예정임
- 지난 2월,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몽골 광물자원청과 Togrog 지역의 구리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탐사권을 획득하였음

국별조사실 전문연구원 김윤희  
Tel: 02-3779-6662  
E-mail: withuni@koreaexim.go.kr